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1

▶ 22회 예고
감옥의 우두머리 전옥은 왕명을 받아 궁녀들을 조사한다. 그러나 라따나 왕자의 음식에 독을 타도록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다. 옥졸들의 잔인한 고문으로 우두머리궁녀는 죽고 겁에 질린 어린 궁녀는 실성해버린다.



라따나 왕자, 독살미수 사건

아반띠국의 수도인 웃자인의 반란은 심각했다. 반란수괴는 빈두사라가 파견한 관리들을 처형한 뒤 웃자인에서 왕 행세를 했다. 웃자인을 지나는 상인들에게 과도한 통행세를 갈취했다. 그러자 대상(隊商)들은 웃자인을 거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까시국 수도인 바라나시로 들어가 짐을 풀었다. 상인들이 오가지 않는 웃자인은 차츰 흉흉해졌다. 성민들은 하나 둘 성을 떠났고 빈 집들이 늘어난 성 안은 활기를 잃어갔다.

빈두사라는 웃자인에 왕자 중에서 누구를 파견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다. 총애하는 라따나 왕자를 보내자니 그는 아직 어렸다. 빈두사라는 날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를 불러놓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다. 빠딸리뿌뜨라 주변 소국에 파견한 왕자들과 관리들이 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했다. 그들을 잘못 파견했다가 실패하면 빈두사라의 체통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소국들 중에 어떤 나라가 자극받아 반란을 일으킬지도 몰랐다.

빈두사라는 날이 갈수록 초조했다. 그런 탓에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칼라따까에게 먼저 물었다.

"소국에 파견한 왕자들이 많이 있소. 그들 중에 누구를 보내면 좋겠소?"

"어찌 소신의 입으로 유능하다, 무능하다고 평가하겠사옵니까? 대왕님은 이미 어떤 왕자님이 유능한지 정확하게 보시고 계실 것이옵니다."

빠딸리뿌뜨라 주변 소국에 파견한 왕자출신 부왕들은 많았다. 그러나 왕자들을 함부로 평가했다가는 나중에 후환이 생길 수도 있었다. 왕자를 낳은 왕비들이 무슨 모사를 꾸며 칼라따까를 공격할지 알 수 없었다. 칼라따까는 그것이 두려워서 심중에 있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빈두사라가 답답해하며 이번에는 라다굽따에게 물었다.

"제관은 어떻게 생각하오?"

"소신도 대왕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허허. 제관의 의견을 묻고 있소. 누구를 웃자인에 보내면 좋겠소?"

"소신은 대왕님께서 누구를 지목하고 계신지 짐작하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대왕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사옵니다. 제 의견은 그것이옵니다."

빈두사라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미 능력이 검증된 아쇼까를 보내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를 못했다. 탁실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쇼까를 웃자인으로 보낸다는 것은 아무래도 잔인한 일이었다. 더구나 탁실라에서 돌아와 아내의 죽음을 알고 실의에 빠져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던 아쇼까였다.

두 번째 아내 아상디밋따를 만나 겨우 진정한 상태인데, 아쇼까에게 또 웃자인으로 떠나라고 명을 내린다면 반발할지도 몰랐다. 설령 마지못해 빈두사라의 명을 따른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원한을 품을 터였다. 뿐만 아니라 아쇼까 말고도 다르마를 설득하는 것도 난감했다.

"아쇼까를 능가하는 왕자들이 없다는 말이오?"

"감히 말씀드리옵니다만 총애하시는 라따나 왕자님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옵니다."

"허허. 시간을 더 끌다가는 나 빈두사라의 명예가 더럽혀질지도 모르겠소."

"대왕님이시여. 다르마 왕비님을 설득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사옵니다. 왕비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쇼까 왕자님이 차마 거절하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

"누가 다르마 왕비를 설득한단 말이오. 아쇼까가 탁실라로 떠날 때 다르마 왕비는 며칠 간 식음을 전폐한 적이 있소."

빈두사라는 다르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다르마는 젖먹이손자 꾸날라를 키우는 고생까지 감수했던 것이다. 빈두사라가 라다굽따에게 말했다.

"사실 다르마 왕비는 왕손을 잉태한 몸이오. 내가 나서서 말할 자신이 없소. 유산이라도 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소? 그러니 아쇼까의 스승인 라다굽따 제관이 나서주시오."

라다굽따는 답변을 못하다가 겨우 한 마디 했다.

"소신은 아쇼까 왕자님의 스승이기는 하였지만 다르마 왕비님을 자주 뵙지는 못했사옵니다. 소신이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도 모르겠사옵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나서지 않는 라다굽따다운 말이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언행 덕분에 자기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그런 위인이었다. 빈두사라가 칼라따까를 쳐다보며 말했다.

"칼라따까 제관이 왕비를 만나 보겠소?"

"다르마 왕비님의 청으로 별궁을 드나들곤 했사옵니다만 왕비님께서 소신의 말을 들어주겠사옵니까?"

"어떻게 말하면 다르마 왕비가 아쇼까를 설득할지 고민해 보시오. 그대의 공은 잊지 않겠소."

그때 친위대장이 들어와 빈두사라에게 귓속말을 했다. 갑자기 빈두사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빈두사라는 즉시 대신들과의 자리를 파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궁을 나와 헤어졌다. 그런데 칼라따까는 내성 동문으로 가다가 다시 궁으로 돌아와 친위대장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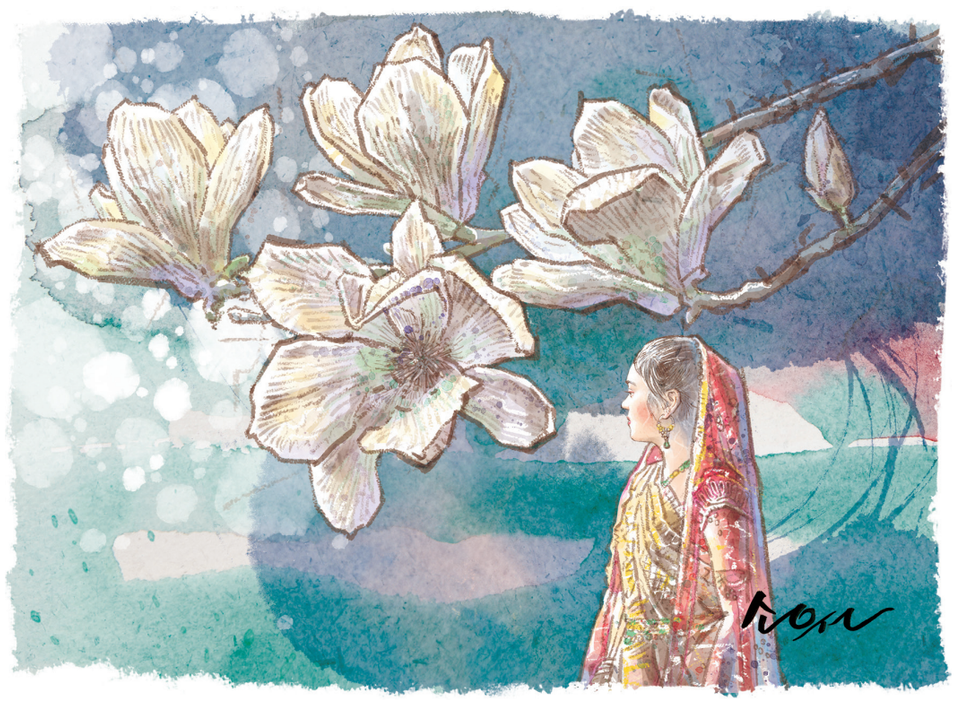
친위대장은 다르마의 신임을 받는 유일한 장수였다. 친위대장은 다르마가 외출할 때마다 자청해서 호위해왔던 공으로 자잘한 허물이 있었지만 대장직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이윽고 친위대장이 심각한 얼굴로 궁문을 나왔다. 칼라따까가 물었다.

"대장, 무슨 일이 있소?"

"간밤에 라따나 왕자님이 독살당할 뻔했소."

"대왕님께서 총애하는 왕자님이신데 도대체 누구의 소행이란 말이오?"

왕자를 죽이려는 음모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탁실라 부왕 수시마도 빠딸리뿌뜨라에 있을 때 독살당할 뻔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시마 같은 왕자를 갖지 못한 왕비들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라는 혐의만 무성했다가 미궁에 빠진 사건이었다. 음식에 독을 탄 궁녀가 강가강에 투신해 죽는 바람에 사건이 유야무야돼버렸던 것이다.



이번에는 라따나 왕자를 짝사랑했던 궁녀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자신이 독을 탄 음식을 먼저 먹은 뒤 입에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다.

라따나 왕자별궁이 발칵 뒤집혔지만 연루자가 죽은 탓에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하루가 지났지만 오리무중이었다. 즉시 우두머리 궁녀는 물론 음식을 만드는 궁녀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라따나 왕자별궁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좀체 바뀌지 않았다.

빈두사라는 감옥에 갇힌 궁녀 전원을 사형에 처하라고 친위대장에게 지시했다. 친위대장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친위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대왕님의 총애를 받는 왕자님들이 표적이 되고 있소. 아마도 질투하는 왕비님들의 소행인 것 같소."

"빠빠 왕비의 동태는 어떻소?"

문득 칼라따까는 궁에 들어왔을 때부터 다르마를 괴롭혔던 15번째 빠빠 왕비가 떠올랐다. 그녀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인지 다산하는 왕비들을 시기했고 자신보다 젊고 얼굴이 반반한 궁녀들을 괴롭혔다. 친위대장이 다시 말했다.

"빠빠 왕비님은 아닌 것 같소. 왕자를 낳지 못하는데 굳이 왕자를 미워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빠빠 왕비님이 시기하는 대상은 라따나처럼 똑똑한 왕자를 낳은 왕비들이겠지요. 대왕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왕비들이겠지요."

칼라따까가 갑자기 처량하게 말했다.

"대왕님께서는 웃자인 반란을 진압하고자 아쇼까 왕자님을 파견하려고 하는 것 같소. 나보고 다르마 왕비님을 먼저 설득하라고 하시는데 방법을 모르겠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 암투가 심한 궁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득할 수 있지 않겠소?"

"아! 그럴 수 있겠소."

"사실이지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소."

칼라따까가 또 다시 친위대장에게 애원하듯 부탁했다.

"다르마 왕비님은 대장을 신임하고 있소. 그러니 함께 다르마 왕비님을 만나면 어떻겠소."

"어렵지 않은 일이오."

두 사람은 곧장 다르마 왕비별궁으로 달려갔다. 락슈미띳사가 두 대신을 맞이했다. 구면인 데다 다르마 왕비가 신임하는 친위대장이므로 락슈미띳사는 바로 두 대신을 안내했다.

"왕비님은 후원에서 산책 중이십니다. 저를 따라 오셔요."

후원도 왕비별궁 앞 정원 못지않게 붉은 양귀비와 하얀 목련꽃이 만발해 있었다. 다르마는 꽃향기를 맡으며 위로받고 있는 듯했다. 다르마가 공작야자수 그늘에 앉아 있다가 두 대신을 보고는 일어났다. 칼라따까가 먼저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왕비님이시여,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쇼까 스승이 라다굽따로 바뀐 뒤로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를 왕비님께 데리고 온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칼라따까는 빈두사라를 대하듯 정중하게 말했다.

"대장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궁에 불미스런 사건이 나서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라따나 왕자님께서 독살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왕자님은 어떤가요?"

"무사합니다. 궁은 안전하기도 하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칼라따까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왕비님, 아쇼까 왕자님도 질투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라따까는 친위대장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친위대장이 마지못해 말했다.

"제관님은 아쇼까 왕자님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르마는 친위대장의 보고를 듣고 나서는 불안해했다. 그러자 칼라따까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장이 가까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무슨 대책을 세워두기라도 했다는 말씀인가요?"

"왕비님이시여, 성 안은 언제나 불안하고 차라리 성 밖은 안전합니다."

"제관님은 아쇼까가 또 다시 성 밖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왕님의 뜻에 따라 왕국을 지키는 영광스런 일입니다."

다르마는 칼라따까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친위대장에게 물었다.

"대장님, 아쇼까가 대왕님의 뜻을 따른다니 무슨 말입니까?"

"왕비님이시여, 아반띠국 수도 웃자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제압하는 일이 마우리아왕국을 지키는 영광스런 일입니다."

칼라따까가 또 다시 말했다.

"왕비님, 아쇼까 왕자님께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는 대왕님의 뜻을 받들어 명예를 더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성 밖으로 나가 목숨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왕자님은 출중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이루실 것입니다. 왕자님께 이러한 제안을 전할 분은 오직 왕비님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소. 어쩌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아쇼까가 멀리 나가 있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소. 탁실라에서 돌아온 뒤 궁 안의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하였기 때문이오."

"왕자님에게 명예가 더해진다면 왕자님의 앞날은 산처럼 높고 강처럼 깊어질 것입니다."

칼라따까는 다르마가 자신의 말을 호의적으로 들어주었으므로 절반은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제 아쇼까는 다르마의 설득에 달린 셈이었고, 자신은 빈두사라에게 포상을 받을 일만 남은 것 같았다. 〈계속〉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